



신라 국호의 양상과 계림

Aspect of Sillas Nation Name and Kerim

저자 채미하
(Authors) Chai, Mi-ha

출처 [신라사학보 \(37\)](#), 2016.8, 1-32(32 pages)
(Source) [SILLASAHAKPO \(37\)](#), 2016.8, 1-32(32 pages)

발행처 [신라사학회](#)
(Publisher) The Society for the Studies of Silla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003196>

APA Style 채미하 (2016). 신라 국호의 양상과 계림. 신라사학보(37), 1-32

이용정보 삼성현역 사문화관
(Accessed) 183.106.106.***
2021/10/21 10:16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신라 국호의 양상과 ‘계림’

채미하*

- | | |
|-------------------|------------------------|
| I. 머리말 | III. 책봉호에 반영된 ‘계림’의 의미 |
| II. 신라 국호의 양상과 변화 | IV. 맺음말 |

【국문초록】

본 논문은 다양한 신라 국호 중 국호 계림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본 것이다. 국호 신라는 기림이사금 10년 이후부터 사용되었지만, 사로·사라 등과 병용되다가 지증왕 4년(503)에 국호 신라로 정해졌으며 법흥왕대 국가 체제가 정비되면서 확정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국호 신라와 계통을 달리 하는 계림은 탈해이사금 9년(65) 이후 사용되었으며 지증왕 4년 이후 국호 신라가 정해진 이후에도 사용되었다. 이후 계림은 왕도인 경주를 이르는 지명으로 쓰이기도 하였다. 이것은 책봉호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당의 기미주 정책으로 신라왕의 책봉호는 문무왕 3년 이후 낙랑군공~신라왕(계림왕)에서 계림도독~신라왕으로 바뀐다. 이와 같은 책봉호의 변화는 중국의 입장에서 관념적인 것에서 명목적인 것으로의 전이었다면 신라의 입장에서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시간강사

주요논저 : <한국 고대 신모와 국가제의> 《동북아역사논총》 52, 2016; <신라의 오묘 제일과 농경 제일의 의미> 《동양고전연구》 61, 2015; <신라 왕실의 김유신에 대한 인식 변화와 그 推尊> 《한국사학보》 61, 2015; 《신라의 오례와 왕권》, 해안, 2015 등

는 중국 군현지배라는 역사적 경험의 극복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책봉호에 신라왕과 더불어 계림도독이 보이는 이유는 김씨 왕실의 알지에 대한 인식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주제어 : 국호, 신라, 계림, 책봉호, 기미주, 낙랑군공, 신라왕, 계림도독, 김씨 왕실, 알지

I. 머리말

《삼국사기》 지리 1에는 “國號曰徐耶伐 或云斯羅 或云斯盧 或云新羅”¹⁾라 하여 신라 국호²⁾의 이칭이 정리되어 있으며 《삼국사기》 탈해이사금 9년조에는 국호 雞林도 보인다.³⁾ 그리고 《삼국유사》 왕력과 기이 신라 혁거세왕조에는 신라의 국호로 徐羅伐(徐伐), 斯羅(斯盧), 雞林國이 나온다.⁴⁾ 이 외에 국내 기록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

- 1) 《삼국사기》 권34, 잡지 3, 지리1 신라, “今按 新羅始祖赫居世 前漢五鳳元年甲子開國 王都 長三千七十五步 廣三千一十八步 三十五里 六部 國號曰徐耶伐 或云 斯羅 或云斯盧 或云新羅”
- 2) 《삼국사기》에는 국호와 국명이 함께 사용되고 있는데 국명은 국호보다 개념이 일반적이고 넓지만 정식으로 정한 이름이 국호라고 하였다(정구복, <우리나라 국호고- 한반도 통일 이후 국호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 《장서각》 29, 2013, 312쪽).
- 3)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 1, 탈해이사금 9년; 《三國史記》 권34, 잡지 3, 지리 1 신라, “脫解王九年 始林有雞怪 更名雞林 因以爲國號”
- 4) 《삼국유사》 권1, 왕력 1, “第一赫居世 姓朴卯生年十三甲子即位理六十年 佽娥伊英 娥英 國号 徐羅伐 又徐伐 或斯(盧) 或雞林說 至脫解王時始置 雞林之号”; 《삼국유사》 권1, 기이 1, 신라시조 혁거세왕, “國號 徐羅伐 又徐伐[今俗訓京字云徐伐 以此故也] 或云斯羅 又斯盧 初王生於雞井 故或 云雞林國 以其雞龍現瑞也 一說脫解王時得金闕智而雞鳴於林中 乃改國號爲雞林 後世遂定新羅之號”

본 기록을 보면 徐那伐, 薛羅, 尸羅, 新良, 志羅紀, 鷄林 등도 있다.

이처럼 신라의 국호에는 다양한 이칭이 있다.⁵⁾ 이에 대해 일연은 고려시대에 ‘京’을 ‘서벌’이라 혼동한 것은 신라의 국호 ‘서벌’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하였다. 신경준은 《頤齋遺藁》에서 《뽕書》 부견전의 薛羅를 신라로 보면서 “대개 신라는 처음에 서벌라라고 칭하였는데 서벌 두 글자가 합하면 ‘薛’음과 비슷하다. 또한 지금 서울사람들은 內官이 관장하는 御膳을 ‘薛里’라고 하는데, ‘薛’의 음가는 ‘섭’으로, ‘涉’의 소리와 같다. 또한 ‘서’와 ‘벌’ 초성 둘이 합한 것이니, ‘薛’의 遺語일 뿐이다.”⁶⁾라고 하였다. 한진서는 《해동역사》 3, 辰韓에서 ‘東語 新曰斯伊 國曰羅’라 하여 신라를 새나라로 보았다.

이와 같은 신라 국호의 다양한 이칭에 대해 일찍부터 어원 분석이 행해졌고 근대 이후에도 언어학적인 해석이 이루어졌다.⁷⁾ 그리고 신라 국호의 변화를 신라의 정치적 변동과 연결지어 국호 계림은 이사금시기 김씨세력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며⁸⁾ 지증왕 4년에 정해진 국호 신라의 ‘網羅四方’과 ‘德業日新’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졌다.⁹⁾

-
- 5) 본문에서 신라(의) 국호는 신라 국호의 다양한 이칭을 말하며 국호 신라는 지증왕대 확정된 국호를 뜻한다. 그리고 다양한 신라 국호의 이칭과 관련된 사료 정리는 박남수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다.
 - 6) 《頤齋遺藁》 권25, 雜著 華音方言字義解, “뽕書苻堅傳 以新羅爲薛羅 蓋新羅初稱徐伐羅 徐伐二合聲 與薛音相近 又今京人呼內官管御膳者爲薛里 而薛音섭如涉聲 亦徐及伐初聲二合 如薛之遺語耳”
 - 7) 이와 관련한 연구 성과는 조지훈, <新羅國號 研究論考 - 新羅原義攷 - > (고려대학교50주년 기념논문집), 1955; 문경현, <신라 국호의 연구> 《대구사학》 2, 1970, 2~12쪽 등.
 - 8) 노중국, <계림국고-초기 신라사의 재검토를 위한 일시론> 《역사교육논집》 13·14합집, 1990, 182~191쪽.
 - 9) 문경현, 앞의 논문, 1970; 천관우, <삼한의 성립과정> 《사학연구》 26, 1975; 신형식, <신라사의 시대구분> 《한국사연구》 18, 1977; 후보돈,

이를 통해 신라 국호의 다양한 이칭의 어원적 관련성이라든가 지증왕 4년 국호 신라가 정해지기 이전에도 신라라는 국호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신라 국호의 변화 과정이 신라의 대내외적인 성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국호 신라가 정해진 이후에도 신라 국호의 다양한 이칭은 사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호 신라와는 계통을 달리하는 계림은 신라 멸망기까지 국호로 뿐만 아니라 지명으로도 나타난다. 특히 신라왕의 책봉호에 계림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여기에 대해 생각해보려고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신라 국호의 양상과 그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지니고 있는 대내외적인 의미를 신라왕의 책봉호를 통해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신라 국호 중 하나인 계림의 역사성을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Ⅱ. 신라 국호의 양상과 변화

신라 국호의 다양한 이칭 중 국호 신라가 신라의 국호로 정해지는 과정을 《삼국사기》에는 혁거세거서간대에 徐那伐로 국호를 하였다가¹⁰⁾ 탈해이사금 9년(65)에 계림으로 고쳤으며 기림이사금 10년(307)에 다시 신라로 복구하고¹¹⁾ 지증마립간 4년(503)에 斯羅, 斯盧, 新羅로 불리던 국명을 신라로 정하여 국호로 하였다고 하였다.¹²⁾ 이

<신라 국호의 확정과 민의식의 성장> 《신라 지방통치체제의 정비과정과 춘락》, 신서원, 1998 등

10)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 1, 혁거세거서간 즉위년.

11) 《삼국사기》 권2, 신라본기 2, 기림이사금 10년.

12)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4, 지증마립간 4년.

와 같은 과정은 《삼국유사》 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삼국사기》와는 달리 기림이사금 10년에 국호 신라에 그 의미를 부여하였고 국호 신라가 지증왕 내지 법흥왕대 정해진 것이라고도 하였다.¹³⁾

이와 같은 《삼국유사》의 기록이 《삼국사기》의 기록과 다른 이유는 저본자료의 차이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잘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증왕 4년 국호 신라가 정해지기 이전에 이미 기림이사금대부터 국호 신라가 사용되었음을 두 사서는 전해준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도 주목된다.

- A-1. ① (영락 5년) 百殘과 신라는 예부터 屬民으로써 조공을 해왔다. 그러나 왜가 신묘년에 건너와 △백잔을 파하고△△ 신라를 臣民으로 삼았다. ② (영락 9년) 기해년에 百殘이 맹세를 어기고 倭와 화통하였다. 이에 왕이 평양으로 행차하여 내려갔다. 그 때 신라왕이 사신을 보내어 아뢰었다. “왜인이 그 국경에 가득 차 城池를 부수고 奴客으로 하여금 왜의 민으로 삼으려 하니 이에 왕께 귀위하여 구원을 요청합니다.” 太王이 은혜롭고 자애로와 신라왕의 충성을 가롭게 여겨 신라 사신을 보내면서 △ 계책을 △ 돌아가서 고하게 하였다. ③ 영락 10년 경자년에 왕이 보병과 기병을 모두 합쳐 5만 명을 보내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고구려군이 男居城을 거쳐 新羅城에 이르니, 그 곳에 왜군이 가득하였다. … 옛날에는 新羅 寐錦이 몸소 고구려에 와서 보고를 하며 聽命을 한 일이 없었다. … (<광개토왕릉비>)
2. … 5월에 高麗大王의 相王公과 新羅寐錦은 세세토록 형제같이 지내기를 원하였다. … 新羅土內幢主下部 拔位使者 補奴 … 가 신라 영토내의 衆人을 모아서 … 움직였다. (<충주고구려비>)

위 사료 A-1)은 414년에 세워진 <광개토왕릉비>에 나오는 것으로, 신묘년과 영락 9년, 10년에 ‘신라’가 보인다. 신묘년은 391년이며 영

13) 《삼국유사》 권1, 왕력 1, “第十五基臨尼叱今(…) 丁卯年(307) 定國號曰新羅 新者德業日新 羅者網羅四方之民云 或系智證法興之世”

락은 고구려 광개토왕의 연호로 영락 9년은 399년이다. 그리고 A-2)의 충주고구려가 건립된 해는 421년(장수왕 9), 449년(장수왕 37), 481년(장수왕 69)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로 볼 때 신라에서는 국호 신라가 정해지기 이전에 신라가 국호로 대외적으로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 정사에 기록된 신라의 국호가 관심을 끄는데, 이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중국 正史에 나타나는 신라 국호

국호	전거	내용	편찬연대
斯盧國	《三國志》 권30, 위서 30, 동이전 30, 辰韓 弁辰	斯盧國(斯盧 卽新羅 乃譯音之轉(배송지 주))	(280~297년?)
薛羅	《晉書》 권113, 載記 13, 苻堅 上	… 分遣使者徵兵於鮮卑·烏丸·高句麗·百濟及薛羅·休忍等諸國 並不從 洛懼而欲止 …	648년
新羅	《梁書》 권54, 列傳 48, 諸夷 신라	魏時曰新盧 宋時曰新羅 或曰斯羅” → 《通典》 권85, 邊防 1 東夷 上 신라국 “初曰新盧 宋時曰新羅 或曰 斯羅”	636년
新羅	《南史》 권79, 列傳 69, 夷貊下 동이 신라	魏時曰新盧 宋時曰新羅 或曰斯羅	659년
新羅	《隋書》 권81, 열전 46, 동이 신라	或稱 斯羅 → 《冊府元龜》 권956, 外臣部 1 種族 ‘或稱斯羅’	636년(本紀, 列傳), 656년(志)
新羅	《北史》 권94, 열전 82, 신라	亦曰斯盧	659년
新羅	《舊唐書》 권 99상, 열전149(상), 동이 신라		945년
新羅	《新唐書》 권220, 열전 145, 동이 신라		1060년

위의 <표 1>을 보면 《삼국지》에는 사로, 《진서》에는 薛羅, 《양서》~《신당서》에는 신라로 사용하고 있다.¹⁴⁾ 그리고 《양서》

14) 한편 《三國志》 권30, 위서 30 동이전 30 倭조에 斯羅(國)이 보이지만,

와 《남사》에는 “魏時曰新盧 宋時曰新羅 或曰斯羅”라고 하였는데, 《통전》에는 “初曰新盧 宋時曰新羅 或曰 斯羅”고 하여, 《양서》와 《남사》와 같이 新盧를 위나라 때의 이름으로 한정하지 않았다. 《태평환우기》에는 위나라 때 新盧國이라 하였던 것이 신라국이 되었는데 斯羅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하였다.¹⁵⁾ 이것은 《양서》와 《남사》, 《통전》 등의 사료와 서술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나, 내용은 같은 것이다. 《북사》에는 신라를 斯盧라고, 《수서》에는 사라라고도 하였다.

이와 같은 중국사서에 보이는 신라 국호의 이칭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나타나는 徐耶伐 또는 徐羅伐, 雞林¹⁶⁾ 등의 국호는 전하지 않는다. 그런데 《양서》와 《남사》에 위나라 때는 신로, 송나라 때는 신라 혹은 사라라고 한 것이 관심을 끈다. 중국 위나라는 220~285년까지 존속하였고, 송나라는 421~479까지 존속하였다. 이로 볼 때 남조에서 3세기대에는 신로, 4세기대에는 신라 또는 사라로 불렀음을 알 수 있다. 《삼국지》를 주석한 배송지는 “斯盧는 곧 신라인데, 음을 옮기면서 바뀐 것이다”라고 하였다. 《삼국지》의 주석은 송 文帝가 《삼국지》의 사실 기록이 지나치게 간략한 것을 보고 배

大秦國을 설명하면서 “斯羅國은 안식에 속하며 大秦과 연결하여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위서》 景明 3년(502)조와 永平 원년(508) 조공기사에 ‘斯羅’의 명칭이 보이는데, 이를 신라와 동일시하기도 한다(국사편찬위원회 편, 《중국정사조선전》). 하지만 사라가 疏勒·罽賓·婆羅捺·烏菴 등 서역의 여러 나라와 함께 등장하고, 그 협주에도 함께 나온 나라들이 ‘史籍 西域傳’을 제외하고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위서》 경명 3년(502)조와 영평 원년(508)조에 조공하였다는 斯羅는 서역의 사라국으로 볼 수 있다.

15) 《太平實宇記》 권174, 四夷 3, 東夷 3 신라.

16) 한편 《日本書紀》 권5, 御間城入彥五十瓊殖天皇 崇神天皇 65년(서기전 33)에도 雞林이 보인다.

송지에게 명하여 註를 달게 했고 배송지는 元嘉 6년(429)에 《삼국지》의 주를 완성했다.

《자치통감》에 따르면 東晉 효무제 太元 2년(377)에 신라가 사신을 보내 秦에 入貢하였다고 한 기사에,¹⁷⁾ 杜佑는 “新羅本辰韓種 魏時爲新盧國 晉宋曰新羅”라고 주를 붙였다. 이 중 “晉宋曰新羅”는 《양서》와 《남사》의 “宋時曰新羅”와 차이가 있지만, 晉代부터 신라라는 국호가 사용되었음을 알려준다. 여기의 晉은 西晉(265~316)이 아닌 東晉(317~420)이다. 《태평어람》에는 신라라는 국명으로 내물왕 6년(381)에 前秦에 入朝하기도 하였다.¹⁸⁾ 이와 관련해서 다음도 주목된다.

- B-1. 태조 원가 2년(425)에 讚은 또 司馬 曹達을 보내어 표를 올리고 방물을 바쳤다. 찬이 죽고 아우인 珍이 왕위에 올라 사신을 보내어 공물을 바쳤다. 스스로 칭하기를 使持節 都督倭百濟新羅任那秦韓慕韓六國諸軍事 安東大將軍 倭國王이라고 하였다. 표를 올려 정식으로 임명해주시기를 구하므로, 조를 내려 安東將軍 倭國王이라 하였다. 珍이 또 倭隋 등 13인을 平西 征虜 冠軍 輔國將軍호를 정식으로 칭하므로 조를 내려 모두 들어주었다. (《宋書》 권97, 列傳 57, 夷蠻 東夷 倭國)
2. 근원을 열고 뼈대를 넓히니(開源拓構) 金水の 해에 시작하고 기틀을 잡았다(《括地志》에 전한다. “《宋書》를 참고하건대, 원가 연간(424~453)에 왜왕 珍이 使持節 都督 왜·백제·신라·任那·秦韓·慕韓 6국제군사를 자칭하였는데, 이것은 신라가 동진·유송 때에 나라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 東晉·유송·南齊·양·陳은 모두 정식 외국 열전이 없으니, 그러므로 그 나라가 있는 유래를 상세히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금수는 동진·유송 때이다.”). (《翰苑》 권30, 蕃夷部 신라)
3. 문제 원가 2년(425)에 讚이 또 司馬 曹達을 보내어 표를 올리고 방

17) 《資治通鑑》 권104, 晉紀 26, 烈宗孝武皇帝 上之中.

18) 《太平御覽》 권781, 四夷部 2, 동이2 신라.

물을 바쳤다. 찬이 죽고 아우인 珍이 왕위에 올라 사신을 보내어 공물을 바쳤다. 스스로 칭하기를 使持節 都督倭百濟新羅任那秦韓慕韓六國諸軍事 安東大將軍 倭國王이라고 하였다. 표를 올려 정식으로 임명해주기를 구하므로, 조를 내려 安東將軍 倭國王이라 하였다. 珍이 또 倭洧 등 13인을 平西 征虜 冠軍 輔國將軍호를 정식으로 칭하므로 조를 내려 모두 들어주었다. … (원가) 28년(451)에 사지절 도독왜·신라·임나·가라·진한·모한6국제군사를 더해주고 안동장군은 예전과 같았다. … 효무제 대명 6년(462) 조서로 興을 安東將軍 倭國王을 제수하였고 흥이 즉자 동생 武가 즉위하여 스스로 使持節 都督倭百濟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七國諸軍事 安東大將軍 倭國王을 칭하였다. 順帝 승명 2년(478)에 사신을 파견하여 표를 올려 말하였다. “옛 조상 때로부터 스스로 甲冑를 걸치고 山川을 넘나들었으니, 처소에 문안드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동쪽으로는 毛人 55國을 정벌하였으며, 서쪽으로는 衆夷 66국을 복속시켰고, 海北으로 95국을 건너가 평정하였으니, 王道가 크게 통하여 먼 곳까지 땅을 넓혔으며, 누대에 걸쳐 朝宗하여 해마다 어김이 없었습니다. 중국으로 가는 길은 백제를 거치니, 배를 갖추어야 하는데, 句驪가 무도하여 우리를 집어삼키고자 하여, 신의 돌아가신 아버지 濟가 크게 일어나고자 하였으나, 갑자기 아버지와 형을 잃으니, 거의 다된 功을 이루려 하였으나 끝내 한 삼태기도 얻지 못했습니다. 지금 병사를 훈련시켜 아버지와 형의 뜻을 펼치고자 하니, 삼가 스스로 開府儀同三司를 가수하였고[假],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게도 모두 각기 假授하여 충절을 권하였습니다.” 하였다. 조서를 내려 武에게 使持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王을 제수하였다. 齊 建元 연간(479~482)에 武를 지절·독왜신라임나가라진한모한육국제군사·진동대장군에 제수하였다. … (《南史》 권79, 列傳 69, 夷貊 東夷 倭國)¹⁹⁾

《송서》 외국전 등에는 讚·珍·濟·興·武 등의 소위 ‘왜 5왕’이

19) 《남제서》 권58, 열전 39, 東南夷 倭國, “建元元年(479) 進新除使持節 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六國諸軍事 安東大將軍 倭王武號爲鎮東大將軍”; 《양서》 권54, 열전 48, 동이 왜, “齊建元中 除武持節 督倭新羅任那伽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 鎮東大將軍 高祖即位 進武號征東大將軍”

413년 찬의 조공으로부터 시작하여 478년 무에 이르기까지 중국 남조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면서 관작을 제수받은 것으로 나온다.²⁰⁾ 위의 사료 B를 보면 송나라 원가 연간(424~453)과 대명(大明)(457~464) 연간에 왜국왕이 스스로 ‘使持節·都督倭·百濟·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七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國王’이라고 일컬었고 齊나라 建元 연간(479~482)에는 왜국왕에게 ‘使持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란 작호를 내렸다. 이러한 칭호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것임에 분명한데, 여기에 신라가 보인다.

이와 같이 국호 신라는 <광개토왕비>나 중국사서와 일본의 기록 등을 통해 지증왕 4년 이전에 사용되고 있었으며,²¹⁾ 이것은 《삼국사기》·《삼국유사》의 기록과 같이 기림이사금 10년(307) 이후 부터였을 것이다.²²⁾ 하지만 이 때의 신라는 사로, 사라, 신로, 新良²³⁾ 등과 함께 사용되다가 지증왕 4년(503) 10월에 국호 신라로 정해졌다. 지증왕대 정해진 국호 신라는 법흥왕 7년(520) 울령 반포와 함께 신라 국

20) 《송서》 왜국전에는 찬이 421년에 시작하여 425년에 조공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남사》에는 晉安帝時(397~418) 有倭王讚遣使朝貢이라고 되어있고 《진서》 안제기 義熙 9년(413) 시세조에는 고구려와 倭夷가 방물을 바친 사례가 있어 413년에 왜가 중국에 조공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찬이 처음 조공한 것은 413년이라고 생각된다. 찬의 조공에 대한 제설과 413년의 타당설은 坂元義種, 1978, 《古代 東アジアの日本と中國》, 吉川弘文館, 345쪽 및 김현구, <5세기 한반도 남부에서 활약한 왜의 실체> 《일본역사연구》 29, 2009, 17~18쪽.

21) 문경현, 앞의 논문, 1970, 23~25쪽; 주보돈, 앞의 논문, 1998, 309~322쪽 참고.

22) 주보돈, 위의 논문, 1998, 213쪽. 한편 문경현, 위의 논문, 1970, 24쪽에서 신라 국호 사용 연대는 4세기 내물왕 내지 내물왕 이전으로 그리 멀지 않은 왕대라고 하였다.

23) 《古事記》 下, 允恭 3년(414) 가을 8월, “此時 新良國主貢進御調八十一隻 爾御調大使金波鎮漢紀武 此人深知藥方 故治差帝皇之御病”

가체제가 정비되면서 확정되지 않았을까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은 금석문 자료를 통해서도 생각할 수 있다.

- C-1. 斯羅의 喙 斯夫智王과 乃智王 두 왕이 교시를 내렸다. … 癸未年 9월 25일 … (<포항 냉수리신라비>, 503)
 2. … 新羅 6부에서 斑牛를 잡았다. … (<울진 봉평리신라비>, 524)

위의 사료 C 중 냉수리신라비에는 국호 신라가 정해지기 직전인 9월 25일에 사라로 기록되어 있으며 국호 신라가 확정된 이후인 봉평리신라비에는 신라로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국호 신라가 정해진 이후에도 신라 국호의 다양한 이칭은 사용되었다. 서라벌(서벌), 사로²⁴⁾는 보이지 않지만, 《양직공도》(526~536)²⁵⁾와 《일본서기》²⁶⁾ 및 <雙溪寺眞鑑禪師塔碑>(887) 등에 斯羅가, <五臺山寺吉祥塔詞·哭緇軍>(895)에는 薛羅, 《동문선》에 수록된 <新羅迦耶山海印寺結界場記>와 《帝王韻紀》에는 尸羅가 보인다. 《出雲風土

24) 중성리신라비(501)의 折盧(국립문화재연구소 관독)는 斯盧(권덕영 관독)와 자획이 비슷하고, 또 글자가 기록된 위치가 국명이 기록될 수 있는 위치 등으로 보아 국명으로 파악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신라 말 금석문에는 계림과 사로가 함께 보인다. <廣照寺眞澈大師碑>, “大師法諱利嚴 俗姓金氏 其先雞林人也 考其國史 實星漢之苗 遠祖世道凌夷 斯盧多難 偶隨萍梗, 流落熊川 …”

25) 《梁職貢圖》 百濟國使, “普通二年(521) … 旁小國有叛波·卓·多羅·前羅·斯羅·止迷·麻連·上己文·下枕羅等 附之”. 《양직공도》는 양나라 元帝가 荊州刺史 재임 중(526~539)에 편찬한 것이다, 후보돈은 1998, 앞의 논문, 321쪽에서 《양직공도》의 사라는 신라인 스스로 사용한 표현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일본서기》의 기록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26) 《일본서기》 계체 7년(513) 冬11월 辛亥朔乙卯와 肅明 15년(554) 冬12월에 등장하는 사라를 신라로 이해하고 있다(최원식 외, 《역주 일본 6국사 신라관계기사》). 그리고 《일본서기》 肅明 5년(544) 3월조에는 ‘신라’와 함께 ‘사라’가 등장한다.

記》(733)에는 志羅紀가 나온다.

이상의 신라 국호의 이칭에 대한 어휘 분석을 보면 徐=斯=尸=志=新이라고 하였고, 那=羅=耶=盧=良은 서로 동음이라고 하였다.²⁷⁾ 따라서 서야(나·라)벌(서벌)=사로(사라)=신로=신량=설라=신라이다. 신라와는 계통을 달리하는 국호 雞林(鷄林)은 《삼국사기》 탈해이사금 9년조와 《삼국유사》 김알지 탈해왕대조의 알지신화²⁸⁾ 뿐만 아니라 《삼국유사》 혁거세왕조의 一說에서 탈해왕 때에 김알지를 얻으면서 숲속에서 닭이 울었으므로, 나라 이름을 鷄林으로 했다고 한다.²⁹⁾ 기왕에는 《삼국유사》 김알지 탈해왕대조에 보이는 알지가 탄생한 ‘始林’[鳩林]을 국호로 보기도 했지만, 《삼국사기》 탈해이사금 9년조에서 “改始林名雞林 因以爲國號”라고 한데서 국호는 계림이라고 할 수 있다. 《삼국유사》에서는 雞貴를 계림으로 보기도 하였으나,³⁰⁾ 《大唐西域求法高僧傳》에는 계귀는 고구려라고 하였다.³¹⁾ 다

27) 김영만, <영일냉수리신라비의 어문학적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3, 1990, 67~68쪽; 권인한, <신라국호 이표기와 한국한자음의 관계> 《울산어문논집》 15, 2001, 121~128쪽.

28) 김두진, <한국고대의 건국신화와 제의>, 일조각, 1999, 323쪽; <신라 六村長神話의 모습과 그 의미> 《신라문화》 21, 2003, 6쪽에서 탈해와 알지신화는 사로국 개국신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으나, 신라 건국신화 속에 흡수되었을 것이라고도 하였다.

29) 서철원은<朴·昔·金 시조신화의 대비를 통해 본 新羅 始祖 관념의 형성 단서> 《신라문화》 40, 2012, 8~9쪽에서 ‘계림’이라는 국호를 통해 박 혁거세와 김알지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30) 《삼국유사》 권4, 義解 5, 歸竺諸師, “… 繼此 有惠業 玄泰 求本 玄恪 惠輪 玄遊 復有二亡名法師等 皆忘身順法觀化 中天而 或夭於中途 或生存住彼寺者 竟未有能復雞貴與唐室者 唯玄泰師 克返歸唐 亦莫知所終 天竺人號海東云 矩矩吒嚩說羅 矩矩吒言雞也 嚩說羅言貴也 彼土相傳云 其國敬雞神而取尊”

31) 《大唐西域求法高僧傳》 권上, 新羅 阿離耶跋摩法師, “阿難耶跋摩者 新羅人也 以貞觀年中 出長安之廣協 王城小[山]名 追求正教 親禮聖蹤 住那

음은 국호 계림이 사용된 용례이다.

- D-1. 坐知王은 金毗이라고도 한다. 義熙 3년(407)에 즉위하였다. 備女에게 장가를 들어 여자의 무리를 관리로 삼으니 나라 안이 소란스러웠다. 鷄林國이 피를 써서 치려하니, 朴元道라는 신하가 간하여 말하였다. … (《삼국유사》 권2, 기이 2, 駕洛國記)
2. 제상은 왜국에 도착하여 거짓으로 꾸며 말하기를 “계림왕이 아무런 죄도 없이 제 아버지와 형을 죽였으므로 도망하여 이곳에 이른 것입니다.” 하니 왜왕은 이 말을 믿고 제상에게 집을 주어 편안히 머무르게 하였다. … 이에 제상을 가두어 두고 묻기를 “너는 어찌하여 너희 나라 왕자를 몰래 보내었느냐?” 하자 제상이 대답하기를 “나는 오로지 계림의 신하이니 왜국의 신하가 아니오. 나는 단지 우리 임금의 소원을 이루게 했던 것뿐이요. 어찌 당신에게 말할 수 있었겠소.”라고 하였다. 왜왕은 노하여 이르기를 “이미 너는 나의 신하가 되었는데도 감히 계림의 신하라고 말하느냐. 그렇다면 반드시 오형(五刑)을 모두 쓸 것이나 만약 왜국의 신하라고 말을 한다면 필히 후한 녹을 상으로 줄 것이다.” 제상이 대답하기를 “차라리 계림의 개 돼지가 될지언정, 왜국의 신하는 되지 않겠다. 차라리 계림의 형벌을 받을지언정 왜국의 작록은 받지 않겠다.” 하였다. 왜왕이 노하여 제상의 발 가죽을 벗기고 갈대를 베어 그 위에 걸게 하였다. 지금 갈대의 붉은 빛깔이 나는 것은 제상의 피라고 한다. 왜왕이 다시 물어 이르기를 “너는 어느 나라 신하인가?”라고 하자, 제상이 “나는 계림의 신하다.”라고 하였다. 왜왕은 쇠를 달구어 그 위에 제상을 세워 놓고 묻기를 “너는 어느 나라 신하인가?”라고 하자, 제상이 “나는 계림의 신하다.” … (《삼국유사》 권1, 기이 1, 奈勿王 金堤上)
- 3-① 제28대 진덕여왕이 즉위하여 스스로 太平歌를 짓고 비단을 짜서 무늬를 놓아 사신에게 명해 당에 가서 그것을 바치게 했다. 당 황제가 아름답게 여겨 상을 주고 雞林國王으로 고쳐 봉하였다. (《삼국

爛陀寺 多閑律論 抄寫衆經 痛矣歸心 所期不契 出雞貴之東境 沒龍泉之西裔 卽於此寺無常 年七十餘矣(雞貴者 梵云 矩矩吒醫醫說羅 矩矩吒是雞 醫說羅是貴 則高麗國也 相傳云 彼國敬雞神而取尊 故戴翎羽而表飾矣 那爛陀有池 名曰龍泉 西方喚高麗 爲矩矩吒醫說羅也).

유사》 권1, 기이 1, 진덕왕)

- ② 我道는 고구려 사람이고 어머니는 高道寧이다. … 어머니가 이르기를, “이 나라가 아직은 불법을 알지 못하나 이후 3천여 달 뒤에는 鷄林에 성왕이 출현하시어 불교를 크게 일으킬 것이다. 그 서울 안에 일곱 군데의 절터가 있다. … 모두 전세의 부처님 시대의 가람터로서 불법이 길이 흐를 땅이니, 너는 거기로 돌아가 큰 가르침을 전파하고 떨치면 마땅히 불교의 개조가 될 것이다.” 아도가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고 계림에 이르러 왕성 서쪽 마을에 머물렀으니, 지금의 엄장사요, 때는 미추왕 즉위 2년 계미년(263)이다. … (<我道碑>)³²⁾

위의 사료 D-1)은 탈해이사금 9년(65) 이후에 국호 계림이 사용된 용례이며 D-2)는 기림이사금대 신라를 국호를 사용하고 난 이후에³³⁾, D-3)은 지증왕 4년 국호 신라가 정해진 이후에 계림이 국호로 사용된 용례이다. 특히 D-3)①을 보면 진덕왕의 책봉호는 계림국왕으로 되어 있다.³⁴⁾ 한편 계림은 지명으로도 등장하는데, 다음이 참고된다.

E-1. ① 대사의 범휘는 麗嚴(862~930)이요, 속성은 金氏이니, 그의 선조는 雞林사람이었다. 먼 조상은 화주 출신으로 왕성에서 蕃衍한 귀족이었다. … (<菩提寺大鏡大師塔碑>) ② 대사의 諱는 開淸이요, 속성은 김씨니, 辰韓의 鷄林 사람이다. 그의 선조는 東溟의 冠族이며, 本國의 宗枝였다. … (<普賢寺朗圓大師悟眞塔碑>)

2. ① 釋 義湘의 俗姓은 朴이고 雞林府사람이다. … (<宋高僧傳>)

32) 이 비는 신라에 불교를 처음 전래한 我道를 顯彰하기 위해서 신라 하대에 건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33) 노중국은 앞의 논문, 1990, 174쪽에서 기림왕대 이후에는 계림 계통의 국호는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34) 진덕왕의 계림국왕 책봉호는 당의 일방적인 책봉이 아니라 신라가 스스로를 계림국으로 불렀기 때문에 계림국왕으로 책봉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진덕왕대 계림을 강조하게 된 배경은 당시 집권 세력인 김춘추 세력의 역사인식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한다. 이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한다.

- 권4, 義解篇 21, 唐 新羅國 義湘傳) ② 당의 義湘은 신라국 鷄林府 사람이다. … (《新修科分六學僧傳》 권4, 慧學 傳宗科 唐 義湘)
3. 신라국은 東海의 동쪽에 있으며 朝鮮國의 동남쪽이다. 國王의 姓은 金이고 隋 文帝 때 通貢하였고 비로소 신라국왕을 책봉받았다. … 唐 貞觀 연간에 선덕여왕이 표를 올려 章服을 고칠 것을 청하였고 당을 따랐기 때문에 君子國이라고 칭하였다. 國에는 雞林州가 있는데, 賈人市 香山詩에 바로 그 도읍[都]이라고 하였다. (《九華山志》 권8, 志餘門 11, 雜記)
4. ① 전건주서당 藏禪師의 법을 이은 4명은 虔州 處微禪師[1인은 錄이 보인다] 雞林 道義禪師, 新羅國 慧禪師, 新羅國 洪直禪師[이상 3인은 機緣語句가 없어 기록하지 않았다]이다. (《景德傳燈錄》 권9, 懷讓禪師 第三世 前虔州 西堂 藏禪師) ② 大鑑의 4세는 건주서당 智藏禪師라고 한다. 그 法을 이어 받은 4명 중 하나는 虔州 處微라 하고 하나는 雞林 道義라 하며 하나는 新羅國 慧禪師라 하고 하나는 新羅國 洪直이라고 한다. (《傳法正宗記》 권7, 正宗分家略傳上, 大鑑之四世 曰虔州 西堂 智藏禪師)

위의 사료 E-1)의 계림인은 신라인으로 계림=신라로 국호로도 볼 수 있지만, E-2)의 계림부의 계림은 지명이다. E-3)의 계림주는 신라국에 對하는 것으로, 신라의 도읍으로 현재의 경주를 가리킨다. E-4)의 계림은 경주를, 신라국은 경주가 아닌 신라의 다른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상에서 신라의 국호에는 다양한 이칭이 있으며 국호 신라가 정해지기 이전 국호 신라는 사용되었고 국호 신라가 정해진 이후에도 신라의 다양한 이칭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국호 신라와는 계통을 달리하는 계림 역시 국호로 사용되었으며 후대에는 왕도인 경주를 이르는 지명이기도 하였다. 특히 후술되듯이 신라왕의 책봉호에도 계림이 보인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신라 국호 ‘계림’이 지니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Ⅲ. 책봉호에 반영된 ‘계림’의 의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중국 사서 등에 열거된 신라 국호는 신라의 대내외적인 정치적 성장과 무관하지 않다. 우선 대내적으로 신라는 경주 일대를 가르키는 徐羅伐·斯盧에서 고대국가인 신라로 발전하였다. 즉 소국으로 출발한 사로국은 정복과 복속 과정을 통하여 4세기 중엽에는 낙동강 동쪽의 경상북도 일대를 지배하는 연맹 왕국으로 발전했다. 그 과정에서 국호를 斯羅·尸羅·新盧, 신라 등으로 부르기도 하였으며,³⁵⁾ 지증왕 4년(503)에 德業이 날로 새로워지고 사방을 망라한다는 의미의 신라라는 국호를 정한 이후 법흥왕·진흥왕대에 중앙집권적 고대국가로 성장하고 발전하였다.

이와 같은 대내적인 성장과 함께 신라는 중국과 교섭하였는데, 나물왕 22년(377)과 26년(381)의 前秦과의 통교였다. 하지만 당시 신라는 고구려 광개토왕의 정치적 간섭을 받고 있었다. 이후 법흥왕 8년(521)에 신라는 양과 교섭하였는데, 이 때는 백제의 사신을 따라갔다.³⁶⁾ 그

35) 주보돈, 앞의 논문, 1998, 315쪽에서 4세기 전반 신라가 이사금에 아닌 마립간이라는 왕호를 사용하면서 사라와 신라가 국명으로 병용되었는데, 이것은 정치적인 변화와 관련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316쪽~317쪽에서 신라는 단순히 사로를 달리 표현한 것이 아니라 진한연맹체가 사로국을 중심으로 재편된 뒤 진한에 대신하는 성격으로 것으로 사용된 국호라고 하였다.

36) 普通二年 始使使隨百濟奉獻方物(《양서》 권54, 열전 48, 諸夷 신라); 遣使於梁貢方物(《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4, 법흥왕 8년). 최근에 이기동은 보통 21년에 양나라로부터 책봉을 받지 못하고, 그 이후 신라가 양에 사신을 보내지 못한 것은, 백제가 양에 대하여 동맹국인 신라를 마치 자국에 의무하는 작은 나라라고 선전하고 한편 양나라가 이를 그대로 잘못 믿었던 데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나아가 신라가 단 1회에 걸쳐 사신을 보냈음에도 양은 신라 유학승 覺德의 귀국편에 沈湖를 사신으로 보내 불사리와 향을 보냈다. 따라서 신라가 불교를 공인하게 된 배경에는 양나라

리고 신라는 고구려·백제와는 달리 중국으로부터 책봉호를 받지 못했다. 중국의 책봉은 주변국 군주에게 爵號를 내림으로써 중국과 주변국과의 君臣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다.³⁷⁾ 따라서 신라가 중국으로부터 책봉을 받는다는 것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질서 속에 편제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만, 신라가 고구려 백제와 함께 대등한 존재로서 중국과 교섭하였음을 말하기도 한다. 이후 진흥왕 25년(564) 北齊와 교섭하였고 왕 26년에 북제로부터 책봉을 받는다.

아래 <표 2>와 <표 4>의 책봉호를 보면 진덕왕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라왕이라고 하였다.³⁸⁾ 지증왕 4년 ‘신라국왕’이라고 칭한 이후 신라왕은 대내외적으로 공식적인 호칭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신라의 책봉호는 낙랑군공(왕) 신라왕에서 계림주(대)도독(자사) 신라왕으로 바뀐다. 우선 낙랑군공이 들어간 책봉호는 다음과 같다.

<표 2> 신라왕의 樂浪郡公(王) 관련 책봉호

신라	책봉호
진흥왕 26년(565)	使持節東夷校尉樂浪郡公新羅王
진평왕 16년(594)	上開府樂浪郡公新羅王

와의 관계가 일정하게 작용하였다고 한다(이기동, <신라인의 ‘서학’ 열풍과 당대 문인과의 교류> 《第2屆 中韓歷史學家論壇論文集》, 국사편찬위원회·南京大 域外漢籍研究所, 2014.11.17~21, 10~11쪽)

37) 이와 관련해서 김종완, <남북조시대의 책봉에 대한 검토> 《동아연구》 19, 1989, 1~2쪽; 김한규, <고대 동아시아 세계질서의 구조적 특성> 《동아시아 역사의 환류》, 지식산업사, 2000; 방항숙, <고대 동아시아 책봉 조공체제의 원형과 변용> 《한중 외교관계와 조공·책봉》, 고구려연구재단, 2005; 권덕영, <나당교섭사에서의 조공과 책봉> 《한국 고대국가와 중국왕조의 조공·책봉관계》, 고구려연구재단, 2006; 辻正傳, <중국 왕조의 외교정책> 《동국사학》 46, 2009 등.

38) 책봉호에 보이는 국호는 중국에 사신을 보내는 나라에서 칭한 국호를 중국 왕조가 그대로 받아들여 국왕호로 책봉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진평왕 46년(624.3)	柱國 樂浪郡公(王) 新羅王
선덕왕 4년(635)	柱國 樂浪郡公(王) 新羅王
진덕왕 원년(647.2)	柱國 樂浪郡王
태종무열왕 1(654.5)	開府儀同三司 新羅王
문무왕 2년(662.1)	開府儀同三司 上柱國 樂浪郡王 新羅王

위의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진흥왕이 북제로부터 책봉을 받은 이후 신라의 책봉호는 낙랑군공~신라왕이었다. 그런데 낙랑군공은 고구려가 남조로부터 받은 책봉호였다. 이것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고구려왕이 중국 남조로부터 받은 책봉호

고구려	중국	책봉호
장수왕	東晉 安帝 義熙 9년(413)	高句驪王 樂浪郡公
	劉宋 武帝 永初 원년(420)	高句驪王 樂浪公
	劉宋 武帝 永初 3년 (422)	高句驪王 樂浪公
	劉宋 孝武帝 大明 7년(463)	高句驪王 樂浪公
	南齊 明帝 建武 원년 (465)	樂浪公
문자명왕	南齊 廢帝 隆昌 원년(494)	樂浪公
	梁 武帝 天監 7년(508)	高驪王 樂浪郡公
안장왕	梁 武帝 普通 원년(520)	高驪王 樂浪郡公
안원왕	梁 武帝 普通 7년(526)	高驪王 樂浪郡公
양원왕	梁 武帝 太清 2년(548)	高驪王 樂浪公

위의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고구려왕은 동진, 유송, 남제, 양으로부터 낙랑(군)공을 책봉받았다. 그리고 양원왕이 548년 양으로부터 책봉호를 받은 이후 남조에서는 고구려왕을 책봉하지 않는다. 이후 북조에서 신라를 낙랑군공으로 책봉하였다.

중국 남조에서는 군현 지배와 관련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이민족에게 책봉호를 주었는데, 고구려왕 책봉호에 낙랑군공이 있는데서 알 수 있다.³⁹⁾ 이것은 백제왕의 경우 군명이 보이지 않는 것과는 비교

39) 최진열, <동진·남북조~당대 주변국 책봉 봉호의 지명 분석> 《역사학

되는 것이다. 중국 북조에서는 고구려왕에게 요동군공, 백제왕에게 대방군공, 신라왕에게 낙랑군공을 주었다. 하지만 남조와는 달리 북조에서 책봉호에 사용한 군명은 특정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고구려와 백제, 신라를 가리키는 관념적인 표현이었다.⁴⁰⁾ 이와 관련해서 다음도 주목된다.

- F-1. 신라국은 고구려의 동남쪽에 있으며 한나라 때 낙랑이居한 땅이다.
 (《수서》 권81, 열전 46,동이 신라)
2. 신라는 … 그 땅이 고구려의 동남에 있고 한나라 때 낙랑이 거하던 땅이다. (《북사》 권94, 열전 82, 신라)
 3. 신라는 … 그 나라가 한나라 때에 낙랑의 땅이었다. 동쪽과 남쪽은 모두 큰 바다에 연하여 있고, 서쪽은 백제와 접하였으며, 북쪽은 고구려와 인접하였다. 동서로 1천리, 남북으로 2천리이다. (《구당서》 권99상, 열전 149(상),동이 신라)
 4. 신라는 … 한 나라 때에 낙랑이 거한 땅이었다. 횡으로는 1천리, 종으로는 3천리이다. 동쪽은 長人國에 닿고, 동남쪽은 일본, 서쪽은 백제, 남쪽은 바다에 연해 있으며, 북쪽은 고구려와 접해 있다. (《신당서》 권220, 열전 145,동이 신라)

위의 사료 F의 《수서》와 《북사》를 보면 신라는 漢나라 때의 樂浪이 있던 땅이었다고 한다. 이것을 《구당서》와 《신당서》가 그대로 잇고 있다. 반면 《양서》와 《남사》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⁴¹⁾ 이처럼 북조계 사서는 남조계 사서와 기록의 차이가 보인다.

보》 197, 2008, 77~82쪽에서 남조에서는 이전에 중국의 군현이었던 지역을 지배했던 나라 혹은 군현과 인접한 나라 혹은 이민족의 군주에게 중국의 군현명이 포함된 봉호가 주어졌다고 하였다.

40) 최진열, 위의 논문, 2008, 85~86쪽에서 북조에서 삼국왕을 책봉할 때 삼국이 영유했던 지역이나 처음 건국했던 지역을 연고지로 삼아 작위를 더 해주었다고 한다.

41) 《양서》 권54, 열전 48 諸夷 신라, “其國在百濟東南五千餘里 其地東濱

남조계 사서가 대외 관계를 주로 기록하였다면 북조계 사서는 민족지적 서술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남조계 사서에는 보이지 않는 내용이 북조계 사서에 기록되었다고 여길 수 있다. 그런데 《삼국지》 진한전은 신라의 위치를 “辰韓在馬韓之東”이라고 하였고 《후한서》 한전에는 “辰韓在東 … 其北與濊貊接”이라고 하였으며 《진서》 진한전에는 “辰韓在馬韓之東”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백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주서》에는 “始國於帶方”, 《수서》와 《북사》에 ‘帶方故址’가 나온다. 반면 《양서》와 《남사》 등 남조계 사서에는 마한의 一國, 《후한서》와 《양직공도》, 《한원》 등에는 마한의 속국이었다고 하였다. 요컨대 구태의 대방고지는 6세기 후반 북제, 북주, 수·당대 백제를 지칭하던 관념적 표현이었다.⁴²⁾

그렇다면 《수서》와 《북사》에서 신라가 漢나라 때의 樂浪이 있던 땅이라는 기록은 당시 중국인들의 신라에 대한 관념적 인식이 투영된 것이 아닐까 한다.⁴³⁾ 그리고 그 인식이 책봉호에도 반영되어 신라왕의 책봉호에 낙랑군공(왕)이 포함된 것으로 여겨진다. 앞의 <표 2>를 보면 문무왕이 당에서 처음 받은 책봉호는 개부의동삼사 상주국 낙랑군왕 신라왕이었다. 그런데 문무왕 3년(663) 4월에 당은 신라에 계림주대독부를 설치하고 왕을 雞林州大都督으로 임명하였다.⁴⁴⁾

大海 南北與句驪百濟接”; 《南史》 권79, 열전 69, 이맥하 등이 신라, “新羅 其先事詳北史, 在百濟東南五千餘里 其地東濱大海, 南北與句麗·百濟接”

42) 윤용구, <仇台의 백제건국기사에 대한 재검토> 《백제연구》 39, 2004, 11~12쪽.

43) 중국인이 신라를 낙랑과 연결시켜 이해한 것은 《삼국지》 진한전의 “名樂浪人爲阿殘 東方人名我爲阿 謂樂浪人本其殘餘人 今有名之爲秦韓者”와 연결지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후고를 기약한다.

기미책은 중국에서 前漢 이후 행해진 이민족 통제 방식이다.⁴⁵⁾ 漢代의 기미책이 군사적인 정복은 물론 군현이나 관리의 파견과 같은 방법을 배제한 소극적인 천하관의 표현이었다고 한다면⁴⁶⁾ 唐代에는 중국의 행정단위를 확대 적용하되 토착 지배자들을 그 장관으로 임명하여 통제했다.⁴⁷⁾ 당은 신라와 연합하여 660년 백제를 멸망시킨 후 웅진도독부를 비롯한 5개의 도독부를 설치했으며 신라를 계림대독부로 삼고 문무왕을 계림주대도독으로 임명했다.

이와 같은 당의 기미주 정책으로 신라의 책봉호는 낙랑군공(왕)에서 계림주도독으로 바뀌었으며 문무왕 3년 이후 문무왕의 책봉호는 雞林州都督左衛大將軍開府儀同三司上柱國新羅王이었을 것이다.⁴⁸⁾ 신문왕의 경우 《삼국사기》 신문왕 즉위년에 “唐高宗遣使册立爲新羅王 仍襲先王官爵”이라고 한데서, 문무왕의 책봉호를 그대로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성덕왕 12년(713) 10월에 성덕왕은 驃騎將軍特進行左衛衛大將軍使持節大都督雞林州諸軍事雞林州刺史上柱國樂浪郡公新羅王에 책봉되었다.⁴⁹⁾ 이 때 신라의 책봉호에 낙랑군공이 다시 보이

44)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 6, 문무왕 3년; 《책부원구》 권964, 外臣部 9, 封册2). 문무왕의 책봉호와 관련해서 金子修一, <中國皇帝と周邊諸國の秩序> 《隋唐の國際秩序と東アジア》, 名著刊行會, 2001, 53~65쪽; 김종복, <남북국의 책봉호에 대한 기초적 검토> 《역사와 현실》 61, 2006, 63~71쪽; 염경이, <당 무후·중종대 사신 파견과 그 외교적 역할> 《강원인문논총》 18, 2007 및 <당 현종대 사신파견과 그 외교적 역할> 《중국사연구》 54, 2008.

45) 《漢書》 권94下, 匈奴傳 64下, 贊.

46) 金翰奎, <漢代의 天下思想과 羈縻之義> 《中國의 天下思想》, 民音社, 1998.

47) 金浩東, 앞의 논문, 1993, 146~154쪽. 《新唐書》 48, 志33下 地理7下 羈縻州. 당의 기미주지배체제와 관련해서 栗原益男, <七,八世紀の東アジア世界> 《隋唐帝國と東アジア世界》, 汲古書院, 1979.

48)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 7, 문무왕 11년.

지만, 이후 신라왕의 책봉호에는 계림주도독(대도독)이 보인다. 신문왕 이후 신라의 책봉호는 다음과 같다.

〈표 4〉 신라왕의 雞林州 관련 책봉호

시기	책봉호
신문왕 즉위년(681)	雞林州都督左衛大將軍開府儀同三司上柱國新羅王
효소왕즉위년(692)	新羅王 輔國大將軍 行左豹韜尉大將軍 雞林州都督
성덕왕 즉위년(702)	新羅王 輔國大將軍 行左豹韜尉大將軍 雞林州都督
효성왕 2년(738.2)	開府儀同三司 新羅王
경덕왕 2년(743.3)	開府儀同三司 使持節 大都督雞林州諸軍事 兼 持節 寧海軍使 新羅王
혜공왕 4년(768. 春)	開府儀同三司
선덕왕 6년(785)	檢校太尉 雞林州刺史 寧海軍使 新羅王
원성왕 2년(786.4)	德宗下詔書曰 勅新羅王金敬信
소성왕 2년(800)	開府儀同三司 檢校太尉 新羅王
에장왕 6년(805.1)	開府儀同三司 檢校太尉 使持節 大都督雞林州諸軍事 雞林州刺史 兼 持節 充寧海軍使 上柱國 新羅王
헌덕왕즉위년(809.8)	開府儀同三司 檢校太尉 持節 大都督雞林州諸軍事 兼 持節 充寧海軍使 上柱國 新羅王
흥덕왕 2년(827.1)	開府儀同三司 檢校太尉 使持節 大都督雞林州諸軍事 兼 持節 充寧海軍使 新羅王
문성왕 3년(841.7)	開府儀同三司 檢校太尉 持節 大都督雞林州諸軍事 兼 持節 充寧海軍使 上柱國 新羅王
경문왕 5년(865.4)	開府儀同三司 檢校太尉 持節 大都督雞林州諸軍事 上柱國 新羅王
헌강왕 4년(878.4)	使持節 開府儀同三司 檢校太尉 大都督雞林州諸軍事 新羅王

대체로 신라에서는 왕위가 교체될 때 전왕의 죽음을 알림과 동시에 책봉을 요청하였다. 성덕왕이 죽자 효성왕은 왕 2년(737) 先王의 죽음과 자신의 즉위를 알리는 사신을 당에 파견하였다.⁵⁰⁾ 혜공왕은 왕 3년(767)에 이찬 김은거를 당에 보내어 책봉을 청하였고 아울러 경덕왕이 죽은 사실을 알렸다.⁵¹⁾ 헌덕왕 즉위년(809)에는 김창남을 보내어

49)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 8, 성덕왕 12년.

50) 《당회요》 권95, 신라; 《책부원귀》 권964, 외신부 9, 봉책(2) 개원 25년 정월.

에장왕의 죽음을 전하였고,⁵²⁾ 문성왕 2년(840)에는 사신을 보내어 신무왕의 죽음을 당에 알렸다고 한다.⁵³⁾ 경문왕의 경우에는 崇福寺碑銘에 “이에 신하를 (당나라에) 보내어 (헌안왕의) 죽음을 고하고 (경문왕이) 왕위를 이은 것을 아뢰었다. 마침내 咸通 6년(869)에 천자가 攝御史中丞 胡歸厚와 우리나라 사람 前進士 裴匡에게 허리에 魚袋를 차게 하고 머리에 多冠을 쓰게 하여 부사로 삼아 王使 田獻鈹과 함께 와서” 책명을 내려주었다고 한다. 효공왕은 진성왕의 추증을 요청하였으며 자신의 즉위를 당에 알리기도 하였다.⁵⁴⁾ 이와 같이 신라왕이 당에 고애사를 파견하면 대체로 그 다음해 당에서는 책명사를 보내어 신라왕을 책봉하였고 신라왕은 책봉에 대한 사은사를 당에 보냈다.⁵⁵⁾ 그리고 다음도 관심을 끈다.

G. (봄 2월) 金力奇를 보내 조공하였다. 김력기가 말씀 올리기를 “1) 貞元 16년(800)에 조서를 내려 신의 옛 임금인 金俊邕를 신라왕으로, 어머니 신씨를 대비로, 부인 숙씨를 왕비로 책봉하셨으나, 冊使인 韋丹이 도중에서 왕의 죽음을 듣고 돌아가 그 冊은 中書省에 있습니다. 앞서 청하옵건대, 지금 신이 귀국하는 길에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이에 칙명을 내려 “김준옹 등의 冊은 鴻臚寺가 중서성에서 수령하고, 김역기가 홍려시에서 받아 받들어 귀국하게 하라. 2) 또 왕의 숙부 彥昇과 그 아우 仲恭 등에게 門戟을 하사하니,

51) 혜공왕 4년에 신라에 온 당의 조문사 겸 책명사 歸崇敬이 당을 나가기에 앞서 獨孤及이 그에게 전해준 <送歸中丞使新羅弔祭冊立序> 가운데 “新羅嗣王以喪訃 且請命於我矣”라고 나온다(《全唐文》 권387, 獨孤及篇).

52) 《구당서》 권99상, 열전149(상), 동이 신라; 《신당서》 권220, 열전 145, 동이 신라; 《당회요》 권95, 신라; 《책부원귀》 권972, 외신부 17, 조공 (5) 원화 7년 4월; 《책부원귀》 권976, 외신부 21, 褒異(3) 원화 7년 7월에 는 헌덕왕 4년으로 나온다.

53) 《구당서》 권99상, 열전 149(상), 동이 신라; 《당회요》 권95, 신라.

54) 《동문선》 권33, 表箋 謝嗣位表.

55) 권덕영, 《고대한중외교사-견당사연구-》, 일조각, 1997, 158쪽.

本國의 예에 준하여 그것을 주도록 하라.”고 하였다.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 10, 애장왕 9년)

위의 사료 G를 보면 애장왕 9년(808) 당에 간 金力奇는 소성왕 2년(800) 왕의 책봉 문서를 가지고 온 조제 겸 책명사가 왕의 죽음으로 미처 수령하지 못한 왕과 왕모, 왕비의 책봉과 관련된 문서를 받아가기를 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신라왕이 고애사를 보내고 책봉사를 요청하였든가, 소성왕의 죽음으로 받지 못한 책봉 문서를 당에 요청하는 것은 신라왕에게 당의 책봉이 나름의 기능을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⁵⁶⁾ 앞의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신라왕의 책봉호를 보면 진덕왕을 제외하고는 신라왕이라고 표기하였다. 다음은 기록에 보이는 진덕왕의 책봉호이다.

- H-1. ① (2월) 당 태종이 사신을 보내서 符節을 가지고 앞 임금을 光祿大夫로 추증하고, 아울러 왕을 柱國 樂浪郡王으로 책봉하였다.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 5, 진덕왕 원년(647)) ② (정관) 21년에 善德이 죽자 광록대부로 추증하고 나머지의 관작은 이전에 封한대로 주었다. 이어서 그 여동생 眞德을 세위 왕으로 삼고 더하여 주국을 주고 낙랑군공에 봉하였다. (《구당서》 권199上, 열전149上 신라) ③ (정관) 21년에 선덕이 죽자 광록대부로 추증하고 여동생 진덕이 왕을 계승하였다. (《신당서》 권220, 열전 145,동이 신라)
2. ① (정관 22년 정월) 신라왕 김선덕이 죽자 선덕의 여동생 진덕을 주국으로 하고 낙랑군공에 봉하였다. 사신을 보내 冊命하였다. (《자치통감》 권198, 唐紀 14, 太宗 下之上) ② (정관) 22년 정월 신라왕 김선덕이 죽자 광록대부로 추증하였다. 선덕의 여동생 진덕을 주국으로 하고 낙랑군공에 봉하였다. 사신을 보내어 부절을 가지고 冊命하였다. (《冊府元龜》 권964, 外臣部 9, 封冊)

56) 이와 관련해서 재미하, <신라의 賓禮-唐 사신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43, 2011; 《신라의 오례와 왕권》, 혜안, 2015 참고.

3. ① 이 해에 신라 여왕 김선덕이 죽자 사신을 보내 그 여동생 진덕을 新羅王으로 冊立하였다. (《구당서》 권3, 본기 3, 태종 하) ② 제28대 진덕여왕이 즉위하여 스스로 太平歌를 짓고 비단을 짜서 무늬를 놓아 사신에게 명해 당에 가서 그것을 바치게 했다. 당 황제가 아름답게 여겨 상을 주고 雞林國王으로 고쳐 봉하였다. (《삼국유사》 권1, 기이 1, 진덕왕)

위의 사료 H-1)과 2)를 보면 진덕왕의 책봉호는 <표 2>에서 진평왕과 선덕왕이 柱國 樂浪郡王 新羅王에 봉해지고 후왕인 태종무열왕이 開府儀同三司 新羅王에 봉해지는 것과는 비교된다. 그런데 H-3)을 보면 《구당서》에는 진덕왕을 신라왕으로 책립하였다고 하며 《삼국유사》에는 계림국왕에 책봉하였다고 한다. 이로 볼 때 진덕왕의 책봉호에는 주국 낙랑군공 뿐만 아니라 신라왕도 포함되지 않았을까 한다. 그런데 《삼국유사》의 계림국왕을 염두에 둔다면 당시 신라국왕=계림국왕으로, 지증왕 4년 이후 ‘신라국왕’을 칭한 이후에도 계림국왕은 함께 사용되었다고 여겨진다.⁵⁷⁾

하지만 문무왕 3년 이후 책봉호에 낙랑군공 대신 계림주가 들어가면서 계림은 국명에서 지명으로 변하였다. 즉 신라왕의 책봉호가 낙랑~신라왕(계림왕)에서 계림~신라왕으로 바뀐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관념적인 것에서 명목적(실질적)인 것으로의 전이었다면 신라의 입장에서는 중국 군현의 지배라는 역사적 경험의 극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책봉호에 계림이 계속해서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계림은 알지와 관련 있으며⁵⁸⁾ 알지는 신라 김씨왕실의 시조이다.⁵⁹⁾

57) <廣照寺眞澈大師碑>, “大師法諱利嚴 俗姓金氏 其先雞林人也 考其國史 實星漢之苗 遠祖世道凌夷 斯盧多難 偶隨萍梗 流落熊川 …”가 참고된다.

58) 김선주, <알영 전승 의미와 시조묘> 《역사와현실》 76, 2010, 178~179 쪽에서 계림국이라는 국호를 알영과 관련지어 이해하였다. 하지만 필자

그렇다면 책봉호의 계림은 김씨왕실의 시조인 알지에 대한 인식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와 관련해서 우선 다음이 주목된다.

- I-1. … 位號는 居瑟邯이라고 한다(혹은 居西干라고도 한다. 처음 입을 열었을 때 스스로 칭하기를 闕智居西干이 一起한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그 말로 칭했으니, 이후로부터 王者의 존칭이 되었다) … 2) ① 국호는 徐羅伐 또는 徐伐 혹은 斯羅 또는 斯盧라고 한다. 처음에 왕이 雞井에서 태어났다. 때문에 혹은 雞林國이라고 하였고 그 雞龍으로써 상서로움을 나타냈다. ② 一說에 脫解王 때 김알지를 얻었는데, 수풀 속에서 닭의 울음이 있어 이에 국호를 계림으로 고쳤고, 후세에 드디어 신라라는 號를 정했다고 한다. (《삼국유사》 권1, 기이 2, 신라시조 혁거세왕)

위의 사료 I-1)을 보면 혁거세의 位號는 거슬한(거서간)인데, 혁거세가 처음 말할 때 스스로 일컫기를 알지거서간이 한번(크게) 일어난다고 하였기 때문에 칭했다고 하며, 그 후로는 왕자의 존칭이 되었다고 한다. I-2)①에서 국호는 서라벌 또는 서벌, 사라 또는 사로라고 하는데 처음에 왕이 雞井에서 났기 때문에 혹은 雞林國이라고도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I-1)에서 혁거세의 거슬한이라는 위호는 알지와 연결되어 있으며⁶⁰⁾ I-2)①에서 (혁거세)왕이 계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는 이 기사는 알영과 알지의 내용이 혼용되어 있는 것으로, 국호는 알지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59)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 1, 탈해이사금 9년; 《삼국유사》 권1, 기이 2, 김알지 탈해왕대.

60) 서철원은 앞의 논문, 2012, 8~9쪽에서 박혁거세가 처음으로 했던 말은 알지거서간의 출현을 예언한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이것은 알지가 혁거세와 같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삼국유사》 제4탈해왕조에서 탈해왕이 시림에 가서 쉼을 열고 보니 그 속에 동남 하나가 누워 있다가 일어났는데, 마치 혁거세의 고사와 같았다고 한 표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국호를 계림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삼국유사》 김알지 탈해왕대조에 “혁거세의 고사와 같으므로 그 말로 인해 알지라고 이름하였다”고 하였다.

이처럼 김씨왕실의 시조인 알지는 혁거세신화에 부속되어 있고 혁거세의 고사와 같은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것은 신라 중고 김씨왕실에서 혁거세를 국조로 삼으면서 김씨왕실의 시조인 알지를 혁거세 신화에 부회한 것이 반영한 것이라고 하였다. 신라 중대 왕실에서는 혁거세=알지=알영의 탄생을 동일시하였는데, 《삼국유사》를 보면 선도성모에서 혁거세와 알영의 유래를 찾으려 “계룡, 계림, 백마 등으로 부르는 것은 닭이 서쪽에 속하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닭=西方, 백마의 백=서방으로 서연산과 연결된다. 알영의 출생에는 계룡이 등장하며, 알지가 태어난 곳은 계림이며 혁거세의 탄생에는 백마가 나온다. 이로 볼 때 계룡, 계림, 백마를 서쪽과 연결시킨 것은 알영, 알지, 혁거세 탄생의 유사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였다.⁶¹⁾ 다음도 주목된다.

- J-1. 신라의 종묘제를 살펴보면 … 제36대 혜공왕대에 이르러 五廟를 始定하였는데, 미추왕을 김성시조로 삼고 태종대왕·문무대왕은 백제·고구려를 평정한 큰 功德이 있어 함께 대대로 不毀之宗으로 삼고 親廟 둘을 겸하여 오묘로 하였다. (《삼국사기》 권32, 잡지 1, 제사)
2. 제13대 未鄒尼叱今[혹은 未祖 또는 未古라고도 한다]은 김알지의 7世孫이다. 대대로 현달하였으며 더하여 聖德이 있었다. 理解로부터 선위를 받아 비로소 왕위에 올랐다[지금 세상에서 왕의 陵을 始祖堂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김씨로써 처음으로 왕위에 올랐기 때문일

61) 채미하, <신라의 건국신화와 국가제의> 《한국사학보》 55, 2014, 179~180쪽 및 184~186쪽. 이와 같이 중대 왕실이 혁거세=알지=알영의 탄생을 동일시 한 것은 선구 신화에 대한 망각이며 몰수로 볼 수 있다.

것이다. 후대에 김씨 왕들이 모두 미추를 시조로 삼은 것은 당연하다. 재위 23년에 죽었다. 陵은 興輪寺 동쪽에 있다. (《삼국유사》 권1, 기이 1, 미추왕 죽엽군)

위의 사료 J-1)에서 미추는 혜공왕대 오묘제가 개정되면서 오묘의 수위에 모셔졌는데,⁶²⁾ 미추를 ‘金姓 始祖’라고 한 것은 J-2)를 보면 미추가 김씨로써 처음으로 왕위에 올랐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미추는 J-2)에서 알지의 7대손이라고 하였는데, 《삼국사기》 미추이사금 즉 위년조와 《삼국유사》 김알지 탈해왕대조에서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신라의 김씨는 알지로부터 시작되었고[新羅金氏自闕智始] 김씨가 나라를 갖게 된 시작은[此金氏有國之始也] 미추로부터였다.

신라 중대왕실은 김씨왕실의 시조인 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上古 전승에 나오는 少昊金天氏의 후손인 성한을 태조로 하여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였다.⁶³⁾ 그리고 오묘제가 시정된 후 종묘의 首位인 태조대왕에도 少昊金天氏에 연원을 둔 星漢⁶⁴⁾을 모셨다. 그런데 혜공왕대 태조대왕이 아닌 시조대왕인 미추를 오묘에 수위에 모시면서 김씨왕실의 시조인 알지는 미추와 직접 연결되는 시조로 그 의미가 다시 부여되었다.

이상과 같이 신라 중고 왕실에서는 김씨 왕실의 시조인 알지를 혁거세 신화에 부회하였으며 중대왕실에서는 알지의 탄생을 혁거세의

62) 시조에 대한 해석과 미추왕이 혜공왕대 김성시조가 된 이유와 관련해서 재미하, 《신라 국가제사와 왕권》, 혜안, 2008, 170~177쪽 참조.

63) 《삼국사기》 권28, 백제본기 6, 의자왕 20년 사론; 《삼국사기》 권41, 열전 1, 김유신(상). 이와 관련해서 이문기, <신라 김씨 왕실의 소호김천씨 출자 관념의 표방과 그 변화> 《역사교육논집》 23·24, 1999, 669~672쪽; 재미하, 위의 책, 2008, 132쪽 참조.

64) 태조에 대한 해석과 태조=성한에 대해서 재미하, 위의 책, 2008, 129~132쪽 참조.

탄생과 동일시하였다. 그리고 해공왕대 오묘제를 개정하면서 알지의 7대손인 미추를 시조대왕으로 모시면서 오묘의 수위에 모셨다. 따라서 국호 신라가 정해진 이후에도 계림이라는 국호가 병행되고 이후의 책봉호에 지명인 계림이 국호 신라와 함께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은 김 씨 왕실의 알지에 대한 인식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IV. 맺음말

본 논문은 신라의 다양한 국호 중 계림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본 것이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따르면 국호 신라가 정해지는 과정을 알 수 있는데, 신라라는 국호는 기림이사금 10년(307)에 사용되다가 지증 내지 법흥왕대 국호 신라가 정해졌다고 하였다. 이것은 <광개토왕릉비>를 비롯한 금석문 자료와 중국 정사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국호 신라는 기림이사금 10년 이후부터 사용되었지만, 이 때의 신라는 사로·사라·신라 등과 함께 병용되었으며 지증왕 4년(503)에 국호 신라로 정해졌으며 법흥왕대 국가체제가 정비되면서 확정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국호 신라와 계통을 달리하는 계림은 탈해이사금 9년(65) 이후 사용되었으며 지증왕 4년 이후 국호 신라가 정해진 이후에도 사용되었다. 이후 계림은 왕도인 경주를 이르는 지명으로 쓰이기도 하였다. 이것은 책봉호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지증왕 4년 이후 신라왕이라고 칭한 이후 신라왕은 대내적으로 공식적인 호칭이었고 책봉호에도 그것이 보인다. 그런데 진덕왕은 계림국왕으로 책봉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당시까지 신라왕=계림국왕이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당의 기미주 정책으로 신라왕의 책봉호는 문무왕 3년 이후

낙랑군공~신라왕(계림왕)에서 계림도독~신라왕으로 바뀐다. 이것은 중국의 입장에서 관념적인 것에서 명목적(실질적)인 것으로 전이었다면 신라의 입장에서는 중국 군현지배라는 역사적 경험의 극복이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책봉호에 계림이 계속해서 보이는 이유는 김씨 왕실의 알지에 대한 인식과 관련있다고 하였다.

계림은 신라 김씨 왕실의 시조인 알지와 관련있는 것으로, 중고 왕실에서는 혁거세를 국조로 삼으면서 알지를 혁거세신화에 부회하였고 중대왕실에서는 혁거세=알지=알영의 탄생을 동일시하였다. 그리고 혜공왕대의 오묘에서 시조대왕인 미추를 오묘에 모시면서 김씨왕실의 시조인 알지는 미추와 직접 연결되는 시조로 그 의미가 부여되었다. 이와 같은 김씨왕실의 알지에 대한 인식은 책봉호의 계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참고문헌】

- 권덕영, 1997, 《고대한중외교사-견당사연구-》, 일조각.
- 김두진, 1999, 《한국고대의 건국신화와 제의》, 일조각.
- 권인한, 2001, <신라국호 이표기와 한국한자음의 관계> 《울산어문논집》 15.
- 김두진, 2003, <신라 六村長神話의 모습과 그 의미> 《신라문화》 21.
- 김영만, 1990, <영일냉수리신라비의 어문학적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3.
- 金翰奎, 1998, <漢代的 天下思想과 ‘羈縻之義’> 《中國의 天下思想》, 민음사.
- 김현구, 2009, <5세기 한반도 남부에서 활약한 왜의 실체> 《일본역사연구》 29.
- 노중국, 1990, <계림국고-초기 신라사의 재검토를 위한 일시론> 《역사교육논집》 13·14합집.
- 문경현, 1970, <신라 국호의 연구> 《대구사학》 2.
- 서철원, 2012, <朴·昔·金 시조신화의 대비를 통해 본 新羅 始祖 관념의 형성 단서> 《신라문화》 40.
- 신형식, 1977, <신라사의 시대구분> 《한국사연구》 18.
- 윤용구, 2004, <仇台의 백제건국기사에 대한 재검토> 《백제연구》 39.
- 栗原益男, 1979, <七,八世紀の東アジア世界> 《隋唐帝國と東アジア世界》, 汲古書院.
- 정구복, 2013, <우리나라 국호고-한반도 통일 이후 국호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장서각》 29.
- 조지훈, 1955, <新羅國號 研究論考-新羅原義攷->(고려대학교50주년 기념 논문집).
- 주보돈, 1998, <신라 국호의 확정과 민의식의 성장> 《신라 지방통치체제의 정비과정과 촌락》, 신서원.
- 채미하, 2008, 《신라 국가제사와 왕권》, 혜안.
- 채미하, 2014, <신라의 건국신화와 국가제의> 《한국사학보》 55.
- 최진열, 2008, <동진·남북조~당대 주변국 책봉 봉호의 지명 분석> 《역사학보》 197.
- 坂元義種, 1978, 《古代 東アジアの日本と中國》, 吉川弘文館.

ABSTRACT

Aspect of Silla's Nation Name and 'Kerim'

Chai, Mi-ha

The nation name of Silla is various, and this thesis is shedding light on the meaning that the naKerim had. The nation name of Silla had been used since KirimEsakeum 10 years, however it had been used jointly with Saro and Sara, and determined as the nation name since Jijeung 4 years and when the nation's system was maintained, its name was confirmed as Silla too. And Kerim which was the different descendants from Silla had been used since TalheEsakeum 9 years and kept even after Silla was the only nation name since Jijeung 4 years.

This was shown through Chaekbongho, Silla king's Chakbongho had been changed from Nakranggungong~Silla's king(Kerim's king) to Kerimdodok~Silla's King since king Munmoo 3 years. This seem to have been Chinese position's transferring from ideal to nominal but Silla's posion was overcoming historical experience of Chinese kunhyun ruling. And the appearing of kerimdodok together with Silla's king in Chakbongho had an inseparable relation with the realizing of Alji of Kim's royal family.

key words : Nation name, Silla, Kerim, Kimijoo, Nakranggungong, Silla's king, Kerimdodok, Kim's royal family, Alji

논문 투고일 : 2016. 6. 21. 심사 완료일 : 2016. 8. 6. 게재 확정일 : 2016. 8. 6.